新世代

이혼관

결혼식을 앞두고 야외촬영을 하는 예비신랑신부들。신혼의 단꿈이 깨기도 전에 파경을 맞는 「속성이혼」이 최근들어 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불행한 결혼」보다 「破鏡」 선택

"내人生 중요"…「성격차이」로도 쉽게 갈라서

「불행한 결혼보다 행복한 파경이 낫다」

신세대의 이혼관을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표현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을 통해 이혼한 2만1천6백99건중 20대가 차지한 비율은 38%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91년 30%)。반면 42·8%를 차지하는 30대의 이혼은 91년의 45%에서 매년 조금씩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나이에 따라 짚어지는 부부사이의 묘미를 믿는 우리 믿요는 20대가 서로 좋아서 산다고 했다。

「열살많은 서로 뭣모르고 살고/스무살은 서로 좋아서 살고/서른들을 눈코뜰새없이 살고/마흔들은 서로 못버려서 살고/쉰들은 서로 가엾어서 살고/예순들은 등터어줄 사람 없어 산다」

속전속결식 인생관

그런 20대 부부들이 살아가는 묘미를 깨닫기도 전에 이혼하는 일이 는는 데는 그들의 자아관 인생관 애정관 자녀관 사회관 등 여러가지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어 연구대상이 됨직하다。

20대 이혼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사유가 「추상적」이라는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30대이후 세대가 배우자의 부정 구타등 보다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드는 대신 이들은 「성격차이」로 표현되는,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곤 한다。

자기중심주의가 너무도 강한 신세대는 「결혼이나 가정 그자체、혹은 배우자나 자녀보다도 나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이다。

예전같으면 충분히 견디며 살았을만한 생활도 「너가 왜 참아야 하느냐」「젊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는 없다」「아기생기기 전에 빨리 헤어지는게 낫다며 참을성없는 세대의 속전속결식 인생관을 보여준다。

직장내 연애결혼을 했다가 1년만에 이혼한 金모여인(27)의 경우。

『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썼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지 견딜수가 없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남편의 실업이었다。그런데도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에게 집사람으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기대했다。가사처리는 물론 다소곳함、순종、시댁에의 헌신 등등…。

「이렇게 평생을 참고 살 수는 없다는 그는 이혼하면서 갓난아기까지 남편에게 주고 나왔다。아기가 불쌍하지 않느냐는 주변의 질문에 『나같은 엄마를 만난것도 그 아이의 운명이라고 서울가정법원 金모판사는 말했다。

이혼재판을 진행중인 회사원 金모씨(29)는 『여자는 남자가 건느려야 한는것 아니냐。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돈좀 번다고 남편 우습게 안는 여자 절대로 용서못한다』고 했다。

「과보호」원인 많아

『젊은 여성들의 의식과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반면 남성들은 여전히 조선시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말하자면 5천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왜 자신이 포기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金판사는 이제 이혼은 더이상 개인의 잘잘못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우리사회、우리 시대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核가족화 영향 「주변」 탓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돼야한다는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도 가정과목을 배우는 것에 비해 남성들은 집에서고 학교에서고 「가정」에 대해 공부한 일이 없다。그러니 남성과 여성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20대 이혼의 또다른 특징은 어려서부터 과보호로 길러진 「어른아이」들에 많다는 것이다。

결혼 반년만에 이혼한 崔모씨(27)는 자신의 직계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효자」다。부부사이의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의논하고 지침을 하달받는다。그러나 이혼한 아내측에서는 그를 「마마보이」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의 鄭모판사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것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시부모든 자식들의 가정사를 시시콜콜 간섭하지만 장인장모측에서도 딸이 어떻게든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달래기보다는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친족이 부부사이의 묘미를 해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람막이가 되는 것。

부모가 쌍지팡이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다。

영국의 변호사 1천건의 이혼사유를 분석한 발표에 의하면 결혼 첫날부터 이미 결혼 첫날부터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마찬가지여서 『조건만 보고 결혼한 경우 문제가 많다。남자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신세대부부의 결혼과 파경을 다룬 영화「결혼이야기」의 한장면。『내가 행복하기 위해 이혼한다』는 역설적 이혼관은 신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혼초기의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화여대 崔惠卿교수(가족학)는 이혼율이 가장 높은 1~5년 사이 부부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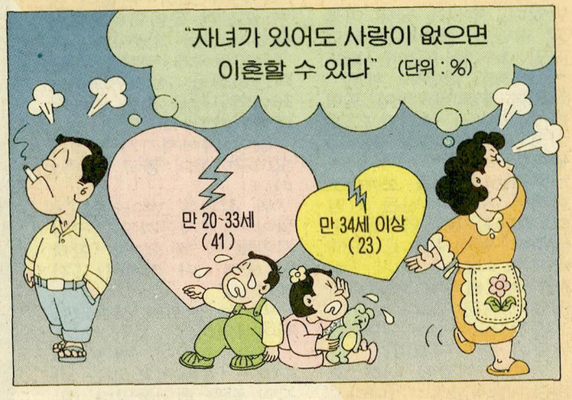
결혼식을 앞두고 야외촬영을 하는 예비신랑신부들。신혼의 단꿈이 깨기도 전에 파경을 맞는 「속성이혼」이 최근들어 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불행한 결혼』보다 『破鏡』 선택

"내人生 중요"…「성격차이」로도 쉽게 갈라서

核가족화 영향 「주변눈치」 안봐

신세대부부의 결혼과 파경을 다룬 영화「결혼이야기」의 한장면。『내가 행복하기 위해 이혼한다』는 역설적 이혼관은 신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녀있어도 사랑않으면 이혼가능" 41%

지난해 대흥기획이 만20~59세의 주부 1천3백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신세대 주부의 41%가「자녀가 있어도 사랑하지않으면 이혼할수 있다」고 응답했다。반면 34세이상의 기성세대는 23%만이「그렇다」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을 4천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올해 다시 실시한 결과 38%가「그렇다」고 응답했다。남성(34%)에 비해 여성의 긍정률이 높았다(42%)。

이혼을 받아들이는 심리는 지난해의 33%(남28、여39%)에 비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金順德)

「결혼초기의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화여대 崔惠卿교수(가족학)는 이혼율이 가장 높은 1~5년 사이 부부들에게『자신이 선택한 배우자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배우자의 문제보다 자기자신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게 하고 서로의 기대치를 알아본 다음

"결혼은 성숙한人格의 만남"

—— 이화여대 崔惠卿교수(가족학)

상대방이 상처받지않는 대화법을 사용함으로써 서로를 이해시키기도 한다。

『신세대는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자신을 더 소중히 여긴다지요。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를 봐도 가정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고 여겨집니다。이혼이라는 것도 결국 보다 나은 가정을 위해 하는 일일테니까요』

崔교수는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중하듯이 배우자를 존중해 보았는지 물고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만이 하는 거랍니다』

하다。

20대 이혼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사유가「추상적」이라는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30대이후 세대가 배우자의 부정 구타등 보다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드는 대신 이들은「성격차이」로 표현되는,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할 수없는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곤 한다。

자기중심주의가 너무도 강한 신세대는「결혼이나 가정 그자체, 혹은 배우자나 자녀보다도 나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이다。

예전같으면 충분히 견디며 살았을만한 생활도「내가 왜 참아야 하느냐」「젊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는 없다」「아기생기기 전에 빨리 헤어지는게 낫다」며 참을성없는 세대의 속전속결식 인생관을 보여준다。

직장내 연애결혼을 했다가 1년만에 이혼한 金모여인(27)의 경우。

『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썼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지 견딜수가 없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남편의 실직이었다。그런데도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에게 집사람으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기대했다。가사처리는 물론 다소곳함, 순종, 시댁에의 헌신 등등…。

「이렇게 평생을 참고 살 수는 없다」는 그는 이혼하면서 갓난아기까지 남편에게 주고 나왔다。아기가 불쌍하지 않느냐는 주변의 질문에 『나같은 엄마를 만난것도 그 아이의 운명』이라고 잘라 말하더라。

남자측의 이혼청구 사유중 가장 많은 이혼사유가 「남편과 시댁측에 잘못한다는 것이라고 서울가정법원 金모판사는 말했다。

이혼재판을 진행중인 회사원 金모씨(29)는 『여자는 남자가 건너려야 하는것 아니냐。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돈좀 번다고 남편 우습게 아는 여자 절대로 용서못한다』고 했다。

「과보호」원인 많아

『젊은 여성들의 의식과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반면 남성들은 여전히 조선시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말하자면 5천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왜 자신이 포기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金판사는 이제 이혼은 더이상 개인의 잘잘못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좋은 아내가 돼야한다는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도 가정교과를 배우는 것에 비해 남성들은 집에서고 학교에서고「가정」에 대해 공부한 일이 없다。그러니 남성과 여성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20대 이혼의 또다른 특징은 어려서부터 과보호로 길러진 「어른아이」들에 많다는 것이다。

결혼 반년만에 이혼한 崔모씨(27)는 자신의 직계가족의 입장에서 보면「효자」다。부부사이의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의논하고 지침을 하달받는다。그러나 이혼한 아내측에선는 그를「마마보이」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의 鄭모판사는『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었다』고 했다。

『시부모도 자식들의 가정사를 시시콜콜 간섭하지만 장인장모측에서도 딸이 어떻게든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달래기보다는「차라리 갈라서라」고 종용하는 일이 적지않습니다』

친족이 부부불화의 완충역할을 해주는 대가족제도와 달리 바람막이가 되지 못하는 산업사회의 핵가족제도아래서 더구나 부모가 쌍지팡이를 들고 다른 자신들의 파경을 부추기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일지도 모른다。

영국의 변호사 밀튼 퍼만이 1천건의 이혼사례를 분석한 발표에 의하면 3백건이 이미 결혼 첫날부터 파경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혼 상품화」 결과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裵今子변호사는『조건만 보고 결혼한 젊은 세대의 경우 문제가 많다고 했다。남자는 듣든한 집안의 맞벌이가 가능한 여자를 찾아서、여자는 남자의 직업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고 결혼한 경우가 특히 그렇다。그 조건이 결혼후에도 유지되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때, 조건만 가지고는 살아갈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때는 상품화했던 결혼을 반환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혼=정상적=행복」이며「이혼=비정상적=불행」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반대하는 신세대가 적지않다。특히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고 의식이 앞선 여성들일수록 그러하다。

결혼한지 반년만에 이혼하고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鄭모씨(28·여)는『이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결코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살아가면서 한번의 큰 실수를 한 것이고 그 잘못이 주는 교훈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한 개인의 모든 것을 이혼자라는 왜곡된 자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했다。

이혼한 젊은 남성들은『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처녀장가 갈 수 있다』거나 여성학자에 따르면 여성을 보다 의외로 큰 후유증을 겪는다고 한다。

「이혼경험을 통해서 본 가부장적 결혼연구」를 진행하며 30여명의 이혼남성을 면담했던 金惠蓮씨(이대대학원 여성학과 졸업)는『이혼한 남자들은「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유교적 사고때문에 승진 누락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쉽다』고 전했다。남성들이야말로 가부장적 사회의 희생자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출판집단 사이소리의 일원으로 이혼 또하나의 선택」이라는 책을 낸 尹永孝씨(29)는『흔히 가정을 편안한 곳이라고 여기지만 가정처럼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결혼을 왜 한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결혼이 잘못됐을때 이혼할 확률이 많을테니까요』

(金順德)